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과 ADHD,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

ADHD,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Impulsivity, Suicide Idea and Quality of Life with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

이혜안*, 심수연*, 양영애*, 임명호**

안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안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단국대학교 심리학과**

Hey An Lee(buru918@hanmail.net)*, Su Yeon Shim(dinojello@naver.com)*,
Young Ae Yang(asmhc@hanmail.net)*, Myung Ho Lim(paperose@dku.edu)**

요약

어린이집 교사는 과도한 업무 및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소진 등의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의 관련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위험군에 대해서 대조군에 비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00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교사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 소진위험군에 해당하는 군은 80명이었다. 모든 대상군에서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척도, 벡 우울척도, 벡 불안척도, 바렛 충동성척도,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 자살사고 척도, 삶의 질 척도 등을 평가하였다. 결과로서 소진위험군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회귀분석에서는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충동성에서도 유의한 odds ratio를 나타내었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에는 불안 등의 정서적 위험요인 외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충동성 등이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중심어 : 어린이집 교사 | 소진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우울 | 불안 | 자존감 | 충동성 | 자살사고 | 삶의 질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of ADHD,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impulsivity, suicide idea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lso, it examined the odds ratio with ADHD,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impulsivity, suicide idea and quality of life between burnout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 set of questionnaires was provided to a total of 310 participants (80 with higher burnout risk and 230 without burnout risk) from April 2015 to July 2015. All of participants were evaluated using the Korean Adult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cales, Beck's Depression Inventory, Beck's Anxiety Inventory, Baratte' Impulsivity Scale, Rosenberg's Self-esteem Inventory and Quality of Life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burnout risk group is related to ADHD and anxiety and impulsivity. For the treatment of burnout in kindergarten teachers, effectiv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ADHD and impulsivity, as well as anxiety, seem to be necessary.

■ keyword : Kindergarten Teachers | Burnout | ADHD | Depression | Anxiety | Self-esteem | Impulsivity | Suicide Idea | Quality of Life |

I. 서론

영유아기는 신체적인 성장발달이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인지, 언어의 발달로 인해 외부 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존재로 성숙하게 됨에 따라 인생의 전 영역 발달에 광범위한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유아 발달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민감하며 반응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의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은 영유아의 안정된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고, 언어적 자극과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인지, 언어, 신체,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교사의 민감성과 성취에 대한 장려는 영유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발달시킨다. 또한 적합한 환경과 자료의 제공은 환경에 사물에 대한 탐색을 발달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이집 교사들의 역할 범위는 다른 그 어떤 연령보다 비중에 크다고 볼 수 있다[1].

또한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의 교육과정에서 맨 처음 만나게 되는 중요한 선생님이며 이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상당히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 유아교육법 제 21조 3항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집 교사의 주된 직무는 유아를 교육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실제로 교수학습과 유아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사무, 시설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어린이집 교사 업무의 절대량 또한 상당히 많은 편이며, 점심시간마저도 유아들의 식사지도 시간이 될 만큼 일과 중에 시간적 여유를 갖기는 실로 쉽지 않다[2].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의 한 보고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55.1시간으로 매우 과중하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44.6%에 이른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가 2012년 한 해 동안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12.1%에 달했고, 실제 사용한 연가 일수는 8.1일로, 희망하는 일수인

16.2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어린이집 교사의 64.2%가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직을 원하는 경우도 48.9%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3].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열악한 근무여건은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월평균 보수에 따라 직무만족도와 보육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1], 직무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조직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처럼 어린이집 교사의 과도한 업무 및 지속적 직무스트레스의 노출은 소진 등의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들이 직무불만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누적하게 되면 심한 좌절감, 무력감, 상실감 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좌절감, 무력감, 상실감 등을 일반적 의미의 신경병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소진증후군(burnout syndrom)이라고 명명한다[5]. 소진은 특히, 교사, 의사, 사회사업가, 상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인봉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소진 현상은 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한 불만족, 잦은 결근, 이직 및 업무의욕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 전체에 과급되어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에 직무 소진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원일의 연구[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직무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과다 노출되고 있으며, 직무과부하,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직무소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직장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무 소진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증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민하영[7]은 유아교육기관 교사 195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우울 및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사의 우울이 직무소진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홍길희와 정혜진[8]은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우울 및 직무소진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으며, 우울이 직무소진에 직접적인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승욱[9]은 서울·경기지역에서 21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장인의 직무소진과 자살사고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형주[10]는 상태·특성 불안이 상담원의 소진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서홍숙[11]은 보육교사의 자존감이 심리적 소진과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지연[12]은 유아교사의 자존감과 소진이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주로 우울, 불안, 자존감 등에 대한 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관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행동적 요인인 ADHD, 충동성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첫째, 어린이집 교사에서 소진의 실태를 평가하고 둘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 위험군에서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의 정서적 요인뿐만 아니라, ADHD, 충동성 등의 행동적 요인, 그리고 삶의 질 등의 연관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위험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조사대상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OO 지역에 거주하는 사설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자가 보고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에게는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연구방법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았다.

2. 연구도구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정서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백우울척도, 백불안척도,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행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판 ADHD 평가척도, 바렛 충동성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소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1 역학 질문지

대상군의 기본 설문 문항으로 성별, 연령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Beck 우울 척도

(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백 우울척도는 Beck[13]에 의해 성인의 우울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상을 Likert 척도가 아니라 증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에 응답케 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수량화하는데서 겪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자기보고식 척도로 각 문항마다 0-3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영호와 송충용[14]은 백우울척도를 국내 표준화하였으며 10점 이상을 경한 우울상태, 16점 이상을 중한 우울상태, 24점 이상을 심한 우울 상태로 제시하였다.

2.3 백 불안 척도 (Beck's Anxiety Inventory, BAI)

임상적으로 불안감을 측정하는데 쓰이는 유용한 평가도구로서 Beck 등[15]이 개발하였다. 임상적인 불안 및 정신과 환자의 불안을 판별하는데 유용하며,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성인에서도 불안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을 포함하는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0점, 조금 느꼈다는 1점, 상당히 느꼈다는 2점, 심하게 느꼈다는 3점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0-63점이다. 육성필 등[16]은 불안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며 불안 척도점수의 경우에는 22-26점의 경우 불안 상태, 27-31점의 경우 심한 불안상태, 32점 이상은 극심한 불안상태로 제시하였다.

2.4 한국판 ADHD 평가 척도

(Korean Adult ADHD Scales, K-AADHS)

DSM-IV의 ADHD 진단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Murphy와 Barkley[17]에 의해 개발된 행동 평가 척도이다. ADHD환자군과 대조군을 변별하는 변별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입증 되었고 18문항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ADHD의 세 가지 하위 유형(주의력 결핍 우세형, 과잉행동-충동 우세형, 복합형)을 구별하는 데 효율적이다.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채점하며 2점 이상의 점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홀수 문항은 부주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짝수 문항은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김은정[18]에 의해 국내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18점이상일 경우 ADHD로 선별할 수 있다.

2.5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 's self-esteem inventory)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기존중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알려져 있다. 1965년 미국의 Rosenberg가 고안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영호 등[19]이 번안하였다. 모두 10문항으로 자기보고 형식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0점에서 3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신뢰도는 0.79이며, 국내연구에서 내적 합치도가 .89임을 보고하였다 [20][21].

2.6 바렛 충동성 척도

(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 BIS, 1969)

Barrett[22]이 무계획 충동성, 운동 충동성, 인지 충동성의 성격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국내에서 이현수[23]가 Barratt 충동성 검사 II의 23문항을 표준화하였다. 이 검사는 인지충동성(예: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며 곧 싫증이 난다.”)을 측정하는 6문항, 운동충동성(예: “한군데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다.”)을 측정하는 8문항, 무계획충동성(예: “한 가지 일이 채 끝

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착수한다.”)을 측정하는 9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 득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개발시의 Cronbach α 계수는 .81이었고, 국내연구에서 .77-.90의 안정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7 삶의 만족도 척도(Quality of Life Scale: QLS)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Diener 등[24]이 개발하고 조명환과 차경호[25]가 번안한 총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이다. 각 문항은 1점(매우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상에 평정한다. 가능한 삶의 만족도 점수의 범위는 5점~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6]에 의하면, 내적 일치도 계수는 .84이었다.

2.8 소진척도 (Malach Burnout Inventory)

소진은 Maslach 등이 개발한 Malach Burnout Inventory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 비인간화(depersionalization), 성취감 저하(lack of person accomplishment)의 개념을 평가한다. 한국에서 강정희 등[27]이 번역하였으며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자료는 한글판 SPSS 15.0을 이용하여 처리하며, 통계 분석에는 필요에 따라 성별 등의 역학 설문평가에는 교차분석을 시행하고, 양 군 간의 ADHD 척도, 충동성 척도, 소진 척도, 우울척도, 불안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삶의 질 척도 등의 점수 분석에는 연령을 고려한 ANCOVA test를 사용하였다. 각각 p 값이 .05 미만인 경우를 유의성이 있음으로 그리고 p 값이 .1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성향(trait)이 있음으로 판단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최종 연구대상자는 310명이었으며, 남성 6명(1.9%), 여성 304명(98.1%)이었다. 소진군은 남성이 2명(2.5%), 여성이 77명(97.5%)이었고 대조군은 남성이 4명(1.7%), 여성이 227명(98.3%)로 양 군 간의 유의한 빈도 차이는 없었다($X^2= .20, p=.656$). 소진군의 평균 연령은 35.78 ± 9.94 세였고,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 39.66 ± 7.96 세로 양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있었다($F=12.07, p=.001$).

표 1. 연구대상자의 역학 특성

변수	소진위험군(n=80) Mean±S.D.	대조군(n=230) Mean±S.D.	F or χ^2	p value
연령	35.78±9.94	39.66±7.96	12.07	.001
성별(N, %)			.20	.656
여성	77(97.5%)	227(98.3%)		
남성	2(2.5%)	4(1.7%)		

2. 소진군과 대조군의 ADHD,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 특성

소진군에서 KARS 총점은 28.78 ± 7.21 점이었고 대조군에서는 23.57 ± 4.29 점으로 양 군 간의 유의한 빈도 차이가 있었다($F=59.54, p<.001$). 소진에서 KARS 부주의 총점은 15.44 ± 4.26 점이었고 대조군에서는 12.34 ± 2.55 점으로 양 군 간의 유의한 빈도 차이가 있었다($F=59.97, p<.001$). 소진군에서 KARS 과잉행동 총점은 13.34 ± 3.72 점이었고 대조군에서는 11.23 ± 2.29 점으로 양 군 간의 유의한 빈도 차이가 있었다($F=35.63, p<.001$). 소진군에서 BDI 총점은 33.11 ± 8.02 점이었고 대조군에서 BDI 총점은 26.04 ± 4.26 점으로 양 군 간의 유의한 빈도 차이가 있었다($F=98.77, p<.001$). 소진군에서 BAI 총점은 13.97 ± 10.28 점이었고 대조군에서 BAI 총점은 4.47 ± 4.23 점으로 양 군 간의 유의한 빈도 차이가 있었다($F=132.43, p<.001$). 소진군에서 소진 총점은 68.27 ± 11.81 점이었고 대조군에서 소진 총점은 35.13 ± 9.47 점으로 양 군 간의 유의한 빈도 차이가 있었다($F=631.30, p<.001$). 소진군에서 RSI 총점은 27.82 ± 4.12 점이었고 대조군에서 RSI 총점은 32.33 ± 3.81 점으로 양 군 간의 유의한 빈도 차이가 있었다($F=79.00, p<.001$). 소진군에서 BIS 총

점은 52.11 ± 9.71 점이었고 대조군에서 BIS 총점은 43.08 ± 7.10 점으로 양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8.18, p<.001$). 소진군에서 QOL 총점은 19.10 ± 6.79 점이었고 대조군에서 QOL 총점은 23.51 ± 6.26 점으로 양 군 간의 유의한 빈도 차이가 있었다($F=27.89, p<.001$).

표 2. 소진군과 대조군의 ADHD,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 특성

척도	소진위험군 (n=80) Mean±S.D.	대조군(n=230) Mean±S.D.	F or χ^2	p value
백우울척도	33.11±8.02	26.04±4.26	98.77	<.001
백불안척도	13.97±10.28	4.47±4.23	132.43	<.001
성인ADHD척도	28.78±7.21	23.57±4.29	59.54	<.001
부주의	15.44±4.26	12.34±2.55	59.97	<.001
과잉행동	13.34±3.72	11.23±2.29	35.63	<.001
자살사고	4.77±5.18	1.38±2.19	65.23	<.001
소진	68.27±11.81	35.13±9.47	631.30	<.001
자존감	27.82±4.12	32.33±3.81	79.00	<.001
충동성 총점	52.11±9.71	43.08±7.10	78.18	<.001
부주의	14.81±3.07	12.91±2.41	31.70	<.001
운동성	18.44±4.06	14.05±3.87	74.12	<.001
무계획	18.86±4.22	16.12±3.52	32.08	<.001
삶의 질	19.10±6.79	23.51±6.26	27.89	<.001

3. 소진군과 ADHD,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의 연관성

소진군과 대조군간의 Logistic model에서 불안위험군은 소진군의 상대 위험도를 4.75배(confidence interval 2.23-10.1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16.29, $p<0.001$). 또한 ADHD위험군은 소진군의 상대 위험도를 2.41배(confidence interval 1.18-4.9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square=5.86, $p=0.015$), 충동성위험군은 소진군의 상대 위험도를 3.00배(confidence interval 1.47-6.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9.03, $p=0.003$)[표 3].

표 3. 소진군과 ADHD,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의 연관성

변수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Chi-square	p Value	Odds ratio
우울	.61	.44	1.94	.164	1.83(.78-4.31)
불안	1.56	.39	16.29	<.001	4.75(2.23-10.12)
ADHD	.88	.36	5.86	.015	2.41(1.18-4.92)
자살사고	.21	.40	.27	.602	1.23(.56-2.69)
자존감	-.71	.40	3.20	.073	.49(.23-1.07)
충동성	1.10	.37	9.03	.003	3.00(1.47-6.13)
삶의 질	-.08	.39	.04	.846	.93(.43-1.98)
연령	-.55	1.15	.23	.634	.58(.06-5.52)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인 민하영[7]의 연구와 홍길희와 정혜진[8]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울보다는 불안에서 소진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실제로 우울이 유일한 위험요인이었을 수도 있으며 우울과 불안의 높은 상관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소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우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이형주[10]는 상담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228명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태/특성 불안이 소진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불안은 소진과 가장 연관성이 높았으며 이는 이형주의 연구결과에 부합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진과 자살사고는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김승욱[9]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서홍숙[11]은 보육교사의 집단자존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존감이 소진에 연관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지연[12]은 대구경북지역의 유아교사 36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단자존감과 소진이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진과 자존감은 회귀분석결과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집단자존감과 소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였으며 본 연구는 개인자존감에 대한 평가이므로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시설의 근무여건에 따른 특성에 따라 소진 혹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나타내었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다. 한임순 등[28]은 교육이외의 과도업무, 부모의 인격적 대우, 근무시간, 교사의 교육 수준, 자격증의 종류, 직위 등의 개인특성 및 근무여건의 특성에 따라 소진과 연관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순안[29]은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월평균 수입, 직무만족도, 근무조건과 업무보상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결혼여부와 교사들 간의 관계도 소진과 연관성을 나타내었다[30]. 김창기[31]는 197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를 통해서 평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학부모와의 관계, 원장의 지도력, 동료와의 관계, 운영 및 행정지원의 부족, 업무과다, 직무 자체 등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은미[32]는 보육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소진에 대한 연관성을 평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연령이 어릴수록 만성피로를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신체건강의 전 영역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근무기간 및 시설여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은 회귀분석에서 소진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권화숙[33]은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이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진과 삶의 만족도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로, 자기보고식 설문지이기 때문에 대상군의 인지적 능력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분석 시에 사회경제적 상태 혹은 교육연한을 통제요인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 둘째로, 횡단연구이므로 양군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없었으며, 소진과 ADHD,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과의 연관성만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분석결과가 과연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에 따른 소진의 결과인가는 알 수 없다.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이전에 나타난 개인적인 특성일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선행요인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연구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과 감정적·행동적 요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적연구는 아직 없었다. 그렇지만 본연구의 결과로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감정적·행동적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본 연구는 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군의 자료를 얻은 지역은 각각 인구 20만 정도의 농촌 도시로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며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이었으며 이는 대도시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등의 개인특성과 과도한 업무 등의 근무여건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변인들이 소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성, 연령, 지역분포,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잘 구조화된 대조군 연구와 관계점들을 보완한 연구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의 관련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 위험군에 대해서 대조군에 비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결과로서 소진위험군은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충동성에서도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에는 불안 등의 정서적 위험요인 외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충동성 등이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1] 박은미, “영아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보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제15권, 제4호, pp.263-290, 2011.
 [2] 김은영, 박은혜, “유치원 교사의 직무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pp.303-323, 2006.
 [3] 김은영,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4.
 [4] 박은주, 문태형, “유아교사가 지각한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pp.75-99,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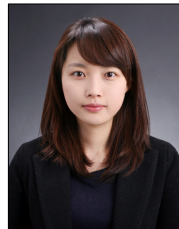
[5] H. J. Freudenberger and G. Richelson, *Burnout*, New York, Bantam Books, 1980.
 [6] 이원일, *직무소진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7] 민하영,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 및 동료교사/원장의 정서적 지지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지지의 주 효과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31권, 제4호, pp.1-14, 2010.
 [8] 홍길희, 정혜진,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9권, 제4호, pp.263-280, 2013.
 [9] 김승욱, *직장인의 직무소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0] 이형주, *상담자의 공감, 상태특성불안, 완벽주의 부정적 결과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1] 서홍숙,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집단자존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2] 이지연, *정서노동이 유아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3] A. T. Beck, C. H. Ward, M. Mendelson, J. Mock, and J. Erbaugh,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Vol.4, pp.561-571, 1961.
 [14] Y. H. Lee and J. Y. Song,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 Clin Psychol*, Vol.10, No.1, pp.98-113, 1991.
 [15] A. T. Beck, N. Epstein, G. Brown, and R. A. Steer,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 Consult Clin Psychol*, Vol.56, No.6, pp.893-897, 1988.
 [16] S. P. Yook and Z. S. Kim, “A clinical study on the korean version of Beck Anxiety Inventory:

- comparative study of patient and non-patient," Korean J Clin Psychol, Vol.16, No.1, pp.185-197, 1997.
- [17] K. Murphy and R. Barkley, "Preliminary normative data on DSM-IV criteria for adults," The ADHD Report, Vol.3, pp.6-7, 1995.
- [18] E. J. Kim, "The validation of Korean Adult ADHD Scale," Korean J Clinical Psychology, Vol.22, pp.897-911, 2003.
- [19] 이영호,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 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 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20] 최옥화, *칭찬부모교육 집단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가 지각한 모-자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1] J. Yoo, W. Yang, K. Lee, S. Lee, C. S. Lee, and H. Y. Lee, "Gender Difference in Self-Esteem of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15, No.3, pp.241-248, 2003.
- [22] E. S. Barratt and R. White, "Impulsiveness and anxiety related to medical students' performance and attitudes," J Med Educ, Vol.44, pp.604-607, 1969.
- [23] 이현수, *충동성검사*, 서울:한국가이던스, 1992.
- [24]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pp.34-43, 2000.
- [25] 조명환, 차경호,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서울:집문당, 1998.
- [26] 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한국 여대생의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중역할 계획태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 연구, 제22권, 제4호, pp.161-185, 2011.
- [27] 강정희, 김철웅, "말라크 소진 측정 도구(Maslach Burnout Inventory)의 적용가능성 평가," 성인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pp.31-37, 2012.
- [28] 한임순, 이순례, 김향자, 권용은,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권, pp.97-130, 1997.
- [29] 김순안,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0] 최윤이, 심숙영, "근무환경에 따른 유아교육 교사의 소진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9권, pp.133-148, 1999.
- [31] 김창기,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문제중심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69권, pp.315-336, 2011.
- [32] 구은미, "보육교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 소진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제15권, 제4호, pp.119-139, 2011.
- [33] 권화숙, "사회지지와 근무환경이 어린이집 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업무요인과 소진을 매개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8권, 제2호, pp.157-174.

저자 소개

이혜안(Hey An Lee)

준회원



- 2009년 8월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복지심리학과(학사)
- 2011년 8월 ~ 현재 : 안성시정 신건강증진센터

<관심분야> : 지역사회정신건강, 임상심리, 건강심리

심 수 연(Soo Yeon Shim)

준회원



- 2012년 2월 : 꽃동네대학교 사회 복지학부 복지심리학과(학사)
- 2013년 10월 ~ 2015년 12월 : 안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관심분야> : 지역사회정신건강, 임상심리, 건강심리

양 영 애(Young Ae Yang)

준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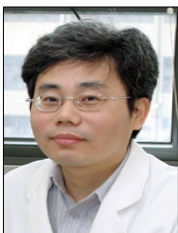


- 1989년 2월 : 공주간호전문대학 간호과(전문학사)
- 2013년 7월 :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학사)
- 2008년 2월 ~ 현재 : 안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관심분야> : 지역사회정신건강, 임상간호, 건강심리

임 명 호(Myung Ho Lim)

정회원



- 1992년 2월 : 충남대학교 의학과(의학사)
- 2002년 8월 : 단국대학교 정신의학과(의학박사)
- 2003년 3월 ~ 2013년 12월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환경보건의학, 임상심리학, 건강심리학